

Daily Auto Check

2020. 6.11(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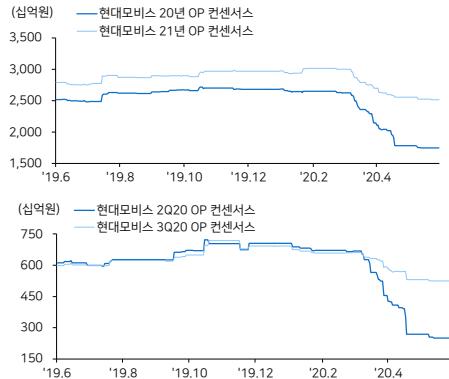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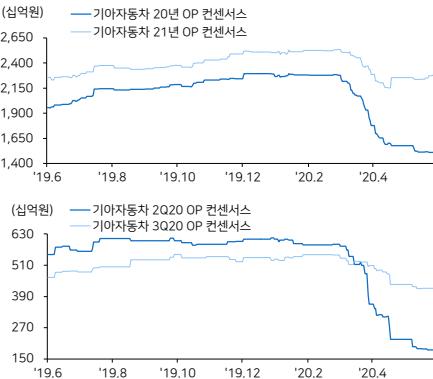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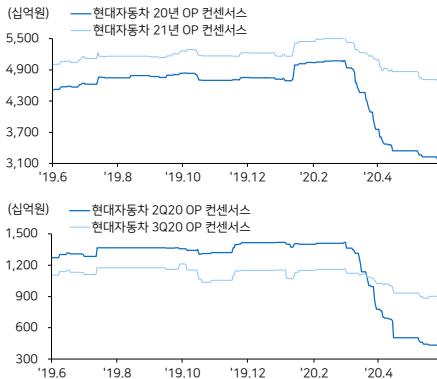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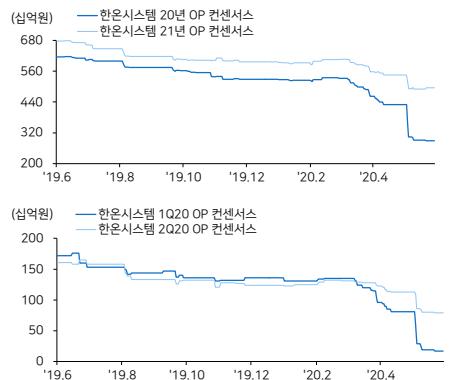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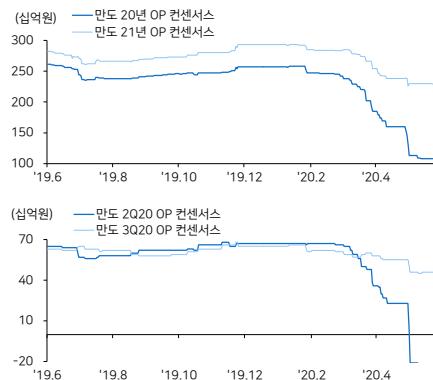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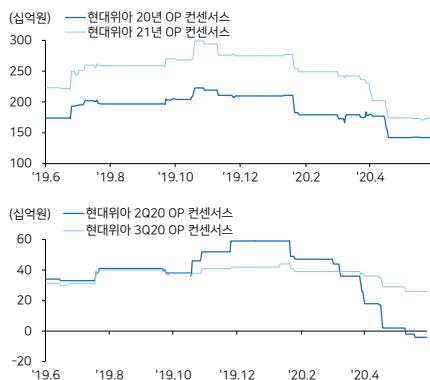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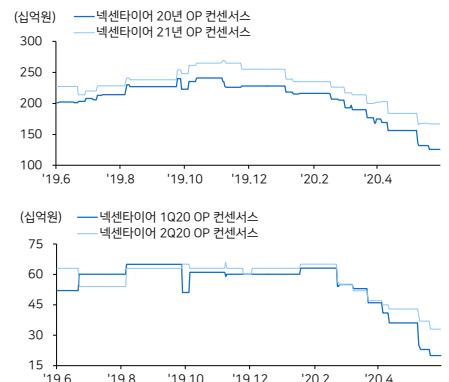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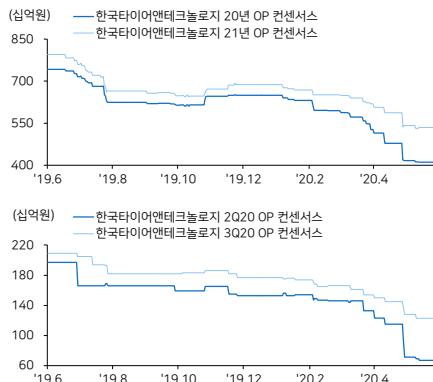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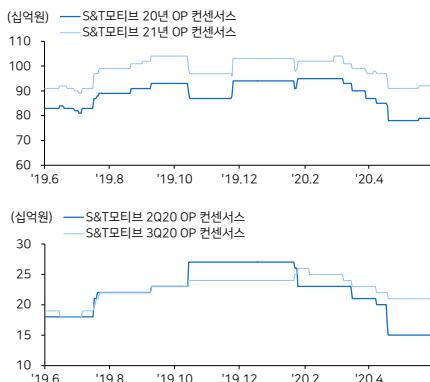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becomes world's most valuable automaker, hits \$1,000 per share (Electrek)

Tesla (TSLA) has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automaker - surpassing Toyota - as its stock pushes to a new high at \$1,000 a share.
<https://bit.ly/3f94i39>

기아차 쏘렌토, 獨서 올해의 4륜구동차 선정 (매일경제)

기아차의 신형 쏘렌토가 독일에서 올해의 4륜구동 차종으로 선정됨. 기아차 유럽법인은 4세대 쏘렌토가 독일 스포츠유저리티차 랭(SUV) 전문지 '아우토 빌드 알라인'의 '올해의 4륜구동 자동차'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힘.
<https://bit.ly/2ATMev9>

혼다 자동차 사이버 공격 당해 11개국 공장 중단 (KBS뉴스)

혼다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세계 각국 공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짐. 지난 8일 혼다의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 터키, 인도 등에 있는 11개 공장의 생산이 중단.
<https://bit.ly/30ww9X4>

BMW, 차세대 전기차 중국 생산 체비 (디지털루미디)

BMW그룹이 올해 안에 첫 번째 순수 전기 BMW SUV를 출시. BMW의 내연기관 SUV 모델인 X3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iX3는 5 세대 BMW e드라이브(eDrive) 기술을 탑재.
<https://bit.ly/3dT1LJY>

테슬라 독주 막아라!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차업체 전기차 속속 출시 (스포츠서울)

올해 1월~5월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42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00% 이상 증가.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전망. 국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차 출시를 속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
<https://bit.ly/2BU5QqQ>

General Motors plans to bring out its first driverless vehicle by 2025 (Reuters)

CEO of General Motors Mary Barra said in an interview that the self-driving vehicle unit Cruise, owned by the carmaker, is expected to deliver the first vehicle in next five years.
<https://bit.ly/30w5Hxa>

아우디 경기차 'e트론' 다음달 출시... '1억인데 400km 못 넘어' (전자신문)

아우디의 첫 BEV 'e트론'이 다음 달 국내 출시. 아우디는 국내 판매 가격을 1억 원 수준으로 책정.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미·유럽 인증 선례에 따라 300km 중반대가 유력. 여기에 보조금 저격 평가에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
<https://bit.ly/2AS9U2R>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쟁강장성(重慶長安) 자동차가 인도 시장 진출을 최소 1년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결정. 이코노믹 타임즈(인터넷판)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https://bit.ly/2AgQnN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